옻칠로 되살린 암각화…성파 대종사 사제전 개막

9월 23일 울산 문화공간 '만디'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기념전
서운암 수중 설치작, 영상 재현
대표작 '수기맹호도' 등 공개돼
옻밭아카데미 회원 작품도 전시

울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는 9월 23일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성파 대종사 옻칠 한국화 사제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반구천 암각화를 예술로 재해석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 한국화가 울산 시민들과 만났다.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9월 23일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성파 대종사 옻칠 한국화 사제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성파 스님은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마당에 대형 옻칠 작품 '나전옻칠-울주 반구대 암각화'와 '나전옻칠-울주 천전리 암각화'를 수중 전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두 작품을 축소 복사해 아크릴판에 담아 전시장 안 수조에 전시한다. 암각화에 담긴 과거 삶의 흔적과 호흡을 오늘의 예술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성파 스님의 대표작 '수기맹호도'와 '피안으로'도 만날 수 있다. '수기맹호도'는 검은 옻칠 바탕 위에 호랑이 형상을 새기고 자개와 금·은으로 장식해 통도사의 수호 상징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대작 '피안으로'는 흑칠 바탕에 은은한 빛과 반사광을 겹쳐 차안과 피안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제10회 옻밭아카데미 회원 초대전'에서는 성파 스님의 제자들이 옻칠과 나전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겹의 옻칠과 자개 분할, 금·은 장식 기법을 사용해 지역의 자연과 일상적 소재를 화면에 반영했다.

개막식에는 성파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성파 스님은 인사말에서 "울산은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문화의 뿌리가 깊은 고장이며, 태화사는 역사적으로 국방 사찰의 역할을 맡아 나라의 힘을 북돋웠다"며 "오늘날 울산은 산업 도시로 발전했지만 그 바탕에는 전통문화의 맥이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열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건축 대상을 수상한 문화 공간으로, 울산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창조의 장"이라며 "이곳에서 옻칠 한국화 사제전을 개최해 선사시대 암각화와 오늘의 예술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또 "옻칠 한국화는 수행과 예술을 잇는 길이며, 제자들과 함께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그 울림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전시는 울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의 뿌리를 다시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라며 "성파 스님의 작품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물결을 형상으로 드러낸 것과 같아, 보는 이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성파 대종사와 제자들의 꾸준한 예술적 정진이 울산에서 꽃피운 것은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감하고, 울산이 전통과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⑫ 유업보무작자

업보를 만드는 자는 없다

有業報無作者

"여러 힘든 상황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 사찰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는 업보 개념을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오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숙명이나 운명처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다. 붓다가 설한 업보는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에 기초한다. 즉, 여러 조건이 맞물려 의도가 작용하는(業) 순간, 그에 따른 결과(報)가 즉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곧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분노를 내뿜으면 곧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예다. 따라서 업보는 선악을 모두 포함하며, 단지 악행의 대가로만 한정하는 것은 오류다.

업보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연기법의 다른 표현이며, 인과(因果) 법칙과 같은 맥락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 해악이 자손에게 미친다"라는 속담에서도 윤리적 의미가 드러난다.

또한 업보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無我)와 연결된다. 무아는 지금 여기의 '나'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하고 영속적인 주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의 마음, 말, 몸짓과 그 결과만 있을 뿐,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유업보무작자(有業報無作者)', 곧 "업과 그 결과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라고 한다.

우리의 삶은 단지 행위와 그 즉각적인 결과가 이어지는 흐름일 뿐, 이를 주재하는 궁극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상은 나가르주나의 〈중론〉 '관업품'에도 나타나며, 그 뿌리는 초기 경전인 〈상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에 두고 있다. 대승불교의 공(空)과 반야 사상 역시 연기와 무아에 기초함을 알 수 있다.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선종의 물음도 같은 맥락이다. 행위와 그 결과만이 있을 뿐, 이를 따로 주재하는 궁극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별도의 주재하는 자가 없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오직 '한 생각'에 주목하라.

〈화순 불암사 주지〉

동아시아 불화판화 진수 '일본 불화판화'를 만나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전
한국불교 영향 받은 日판화
선광사 삼존불 판화 등 전시


일본 선광사 아마타삼존불 목판화. 백제 성왕이 일본 선광사에 전한 아미타삼존불상을 판화로 제작했다. 이번 고판화박물관 특별전에 처음 공개된다.

서건동진(西乾東震). 예불문에 담긴 이 구절은 불교가 서쪽 인도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전래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불교의 법(法)은 여러 문명권을 거쳐 전해지며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을 활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그림'이다. 불경(佛經) 앞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변상도나 한국불교 특유 대형불화 '괘불'은 경전의 내용 등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글자를 모르던 민초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방편이었다.

한국불교가 다양한 도상들의 불화들이 존재한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상들을 다시 판각해 인쇄하는 '불화판화'가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발달했다. '일본 불화판화'의 진수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전시 '불교 목판화의 꽃 일본 불화판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5년 국가유산청 생생국가유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고판화박물관 일본 불화판화 소장품 1000여 점 중 일본 판화의 진수가 담긴 대형 불화판화를 중심으로 50여 점(판목 포함)을 선별·전시한다.

전시는 장르별로 총 4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판화와 불·보살 판화들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된다. 특히 1부 전시에는 한국불교의 영향을 받은 일본 불화판화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선광사 대형 아미타삼존불 판화'는 백제의 성왕이 일본 선광사에 보내 준 아미타삼존불상을 그대로 판화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성왕이 보낸 '아미타삼존불상'은 현재까지도 선광사의 '비불(祕佛)'로 전승되고 있으며, 7년에 한 번만 대중에 공개된다. 이 같은 이유로 선광사는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에도시대에 판화 판목으로 제작해 대중들에게 도상을 보급하며 포교를 이어갔다.

일본 지은원에 소장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를 판화로 제작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목판화'(에도 시대)도 다시 공개된다.

2부에서는 일본에서 발달한 정토신앙 관련 불화판화인 아미타래영도 판화와 극락 관련 판화들이 소개된다. 염라대왕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 지장보살이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지옥만다라(윤회도) 채색 불화판화'가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 극락세계로 이끄는 대형 '아미타내영도', 세계 최고의 판목 중 하나인 1845년 도쿄 조조지 완성 관경만다라 판목도 소개된다.

3부 전시에서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태장계만다라를 비롯한 밀교판화를, 4부 전시에서는 대형 불화판화를 만나볼 수 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한국과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에도 시대의 인쇄문화 발전으로 다양한 불화판화들이 가정 예배 및 포교용으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에도시대 불교는 일본 대중들에게 깊이 전파됐다"면서 "더불어 일본 불교 종단에서는 종파들의 가르침이 담은 도상들을 판화로 제작해 전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 전승과 그 가르침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미륵사지석탑은 왜 손칼을 품었나

국립익산박물관 '탑이 품은 칼' 특별전

2009년 출토 유물 '손칼' 중심
백제 공예기술, 의미 등 조명
5년 간 협업으로 복원에 성공
조성 당시 손칼, 스님 생활용품
이발부터 종기 제거까지 활용

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5년에 걸쳐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출토 손칼.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유구가 나왔다. 바로 '손칼.' 석탑 내 사리장엄구 안에 '손칼'은 왜 비장돼 있었을까. 이를 알아가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내년 2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탑이 품은 칼, 미륵사에 깃든 바람'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5년여 간의 작업 끝에 복원이 완료된 미륵사지석탑 출토 손칼을 중심으로, 백제 불교문화와 공예 기술과 손칼의 불교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9월 23일 열린 언론공개회에서는 복원을 마친 손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09년 처음 발견된 손칼은 639년 석탑에 봉안된 이후 약 1400여 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해 원형을 알기 힘든 안타까운 모습으로 실물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익산·청주·김해 국립박물관의 상호 협업으로 5년 동안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 심층연구를 통해 손칼은 복원됐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은 '손칼'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작은 칼이 필요했던 일상'에서는 쇠 손칼과 뼈 손잡이 등 고대인의 생활 속 칼을 전시하며, 문자생활 도구로서의 기능까지 조명한다.

2부 '흔적, 몰랐던 이야기'는 손칼의 내부 구조와 제작 재료, 봉안 당시 감싸졌던 직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선보이며 3부 '꾸밈을 더하고, 마음을 담아'에서는 손칼이 불교 공양품이자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된 배경을 다룬다.

전시를 따라가다 보면 고려 시대 당시 손칼은 어떤 용도를 활용됐고, 불교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실제 불교 경전에서는 손칼은 수행자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도구로 등장한다. 〈범망경(梵網經)〉은 부처의 계율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칼[刀子]'을 포함한 18가지 기본 규율을 제시하고 있다.

〈비니모경〉, 〈근본설일체유부니다나〉에서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손칼의 용도로 △손톱을 깎을 때 △종기를 짤 때 △옷을 자를 때 △옷에 붙은 털이나 실을 자를 때 △과일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삭발 등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됐다.

박물관은 "손칼은 단순한 절삭 도구가 아니라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계율의 상징이자 정제된 삶의 도구였다"고 설명했다.

복원된 손칼은 공예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칼 손잡이에는 금박 장식 위에 바다거북의 등껍데기를 덧입힌 '대모복채법(玳瑁覆彩法)'이 적용됐는데, 이는 고대 동아시아 장식기법 중에서도 고난도의 기술로 손꼽힌다. 일본 나라(奈良)의 정창원(正倉院)에도 같은 기법이 적용된 손칼 1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이 유물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복원으로 백제에서 해당 기법이 100년 이상 앞서 사용됐음이 확인되면서, 문화 전파의 방향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물관은 "이는 백제가 외래 문화를 수용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창조하고 동아시아에 전파한 주체적 문화 강국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